

사설

지역사회서의 사찰역할

조계종 총무원에서 지역 사찰 사회활동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의표명을 한 것은 그동안 불교의 사회화를 외쳐온 조계종 종단의 행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의 정책 발표를 보면, 그 방향과 실천 방안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내용을 담고 있어서 훌륭한 명분세우기를 위한 발표가 아니라, 점을 집착하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사회복지활동, 생태사찰 만들기, 지역사회와의 연대활동이라는 영역 설정도 시의성이 있으며, 환경·복지단체와 전문가들과 영역별로 팀을 구성하여 모델링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도 올바른 순서를 밟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 동안 각 영역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던 단체나 전문가들을 그러한 모델링 작업에 참여시켜 일을 진행하는 것 또한 거대 종단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답게, 그간의 성과를 포용하여 보다 한 걸음 나아간 사업으로 전개시키겠다는 자세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을 잃지 않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단계적인 시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큰 방향 전환에 종단이 준비의 중심이 되고 그러한 철저한

준비가 각 사찰로 확산되게 한다는 방침 또한 현 조계종의 여건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효과적으로 전개되는 데 역시 결정적인 관건이 되는 것은 사찰을 받고 있는 스님들의 의식 전환이다. 그러하기에 종단 차원에서 스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종단의 큰 정책이 모든 스님들에게 전달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스님들이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참여 없는 앞날의 불교가 바로 설 수 없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구태의연한 사찰 운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종단의 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야 한다.

실로 전국에 있는 사찰들이 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사회운동의 중심으로 나서는 것은 이 세계를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고 또 불법을 흥포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찰에는 당연히 신도조직이 있기에 스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해 간다면 그 파급효과가 매우 신속하고도 클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번의 정책을 바탕으로 조계종이 이 사회를 맑히고 밝히는 일에 구호만이 아닌 진정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새 출발하는 중앙승가대

조계종립 중앙승가대학교가 새 총장을 맞아들이고 마침내 새 학사로 이전한다. 11월 30일 열린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대행위 회의에서는 오는 18일부터 김포학사의 이전을 시작하기로 했다. 내년 3월이면 새 학사에서 새 학기를 시작한다. 95년 한국의 '나리다 대학'을 지겠다는 커다란 원력으로 시작한 불사가 5년여만에 마무리하고, 새 출발의 선상에 섰다.

한국불교 승가교육에 있어서 중앙승가대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79년 개교 당시 여러 강연과 달리 많은 의견을 교과목으로 채택한 것은 지성불교의 장을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불교의 교육기관은 수행이 추가되어야 하지만, 사회에서 불교에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 교육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이었다. 이것이 강원이여, 몇 있음에도 중앙승가대가 생겨야 하는 당위성이었고, 이에 많은 이들이 공감해 중앙승가대를 열었다. 그만큼 예산도 많이 부어졌다. 올해 교육원 예산(세출 기준) 34억6700여만원 가운데 중앙승가대 대학 보조금이 12억원이다.

중앙승가대는 개교 이래 1천여명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했다. 각종학교에서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했으며, 포교학과 역경학과 등을 개설해 외연을 넓히기도 했다. 초기의 졸업생은 우리 불교계의 중진이 되었다. 곳곳에서 주어진 소임을 살려 한국불교를 떠받치고 있다.

중앙승가대가 새 학사 이전을 계기로 불심양면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원한다. 새출발은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털어낼 것은 무엇이고, 간직해갈 것은 무엇인지를 찬찬히 들여보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특히 승가의 지적 수준이 일반 국민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한다. 그게 중앙승가대만의 문제냐 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스스로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제2의 출발을 하는 중앙승가대의 새 총장에 승가와 불교학계에서 존경을 받는 종범스님이 취임했다. 종범스님은 학사 이전과 운영 계획 등을 짜느라 대학의 꽃인 총장이 되었다는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을 것이다. 중앙승가대의 든든한 구심점이 되어주길 당부한다.

승가대 18일 김포 이전

입주식 내년 2월...안암학사 연수·교육 활용

조계종립 중앙승가대(총장 종범)가 18일 김포학사로 이전한다. 이로써 부실시공과 공사비 미련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어온 중앙승가대가 승가교육 진흥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김포학사 시대를 열게 됐다.

김포학사는 5만3천평 부지에 건평 9천 2백평이며, 지하1층 지상 4층의 대학관과 48개의 연구실을 갖춘 교수회관, 3층 규모의 강의를, 470명 수용 규모의 비구·비구니수행관 등 5개 건물을 갖추고 있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대행위위원회(위원장 영담)는 11월 30일 종회 사무처에서 회의를 갖고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을 위한 추진일정과 안암학사 활용계획, 2001년 김포학사 운영예산안 수립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전대행위 결정사항은 5일 총무원 장이며 승가학원 이사장인 정대 스님의 인가를 거친 뒤 김포학사에 이전상황실을 설치하고, 18일

부터 행정부서를 시작으로 1월 10일까지 단계별로 이전하여 내년 2월 입주식을 갖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암학사 활용계획과 관련, 안암학사는 승가학원의 기본재산임을 재확인하고 중앙승가대학 세입원 확충을 위해 법인사무처가 공간활용과 수익사업을 책임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단에서 연수 및 교육, 포교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승가대학은 불교언론작업학교 불전국역연구원, 보육교사양성소, 대학원 설립 추진본부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익사업으로는 고시원 운영, 하숙업, 사무실 임대, 독서실 운영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현안이 되고 있는 중앙승가대의 내년 운영예산과 관련해 총 27억6천9백97만원의 긴축예산안을 상정한 교육원 안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승가대의 전입교원수가 동결되고, 총무원 기획실 교학처가 교학처 행정사무

처 2처로 되는 등 행정부서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은 1979년 개운사에 개교했으며, 90년 2월 교육부 인정 각종학교, 96년 12월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인됐다. 현재 전입교원 17명, 직원 18명, 288명의 학인이 수학중이다. 졸업생은 930여명이 배출돼 종단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문화재관람료 인상 재고 촉구”

재가연대 등 14개 단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녹색연합,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불교비교세우기재가연대 등 14개 환경관련 단체는 11월 29일 ‘조계종의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인상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7월 1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를 30% 인상한 데 이어, 12월 1일자로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를 당게는 3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지난 9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이었음)와 관련, “이는 조계종이 주도한 ‘국립공원제도 개선시민위원회’의 발족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조계종의 의지와는 배치되는 것이므로 인상계획을 전면 재검토,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또 “우리는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 인상을 통한 금전적 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국립공원 내에서 사찰이 차지하는 커다란 비중을 활용하고 고려

하여 시민사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정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변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조계종이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인상 조치의 시행을 일정기간 유보하고, 정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와 공동의의에 참여해, 국립공원관리정책의 근본적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지는 일에 비중 있는 이해 당사자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지리산땀 반대 공문 전달

189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지리산살리기·땀백지화추진 범불교연대(상임공동대표 수경스님)는 11월 25일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국회, 낙동강물이용조사단 등 53개 관계기관에 971개 사찰 주지 및 시민 33만명의 서명부 등을 첨부한 ‘지리산땀 건설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 ‘지리산땀 건설계획 반대 결의문’,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주지의 결의문, 지리산살리기국

민행동의 지리산땀 백지화요구 결의문 등도 첨부했다.

김재경 기자

한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11월 29일 상략된 2층 강당에서 제6차 임사이사회를 열고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을 제5대 이사로 선출했다.

김원우 기자

승가교육기금 내년부터 조성

2005년까지 기금 확보
행자교육원 신설 등 지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승가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행자교육원 신설과 기본 전문교육기관 시설지원을 위한 승가교육기금을 내년부터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12월말까지 추진위원회(위원장 일면)를 구성한 뒤, 2005년까지 행자교육원 35억, 기본교육원 9억, 선원 육성 9억, 재교육 7억원 등의 50억 기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방안으로는 종단에선으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는 시설비 등과 행자교육도당 설립기금 등 사업 주체의 별도기금 조성, 교육원 차원의 기부금, 수익금을 조성키로 했다.

교육원 확충기 계획은 “현재 종단의 경사비 예산체제와 구성 내용으로는 교육 목적사업과 그에 따른 교육예산을 충족시켜 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종단 교육사업 진흥을 위한 동적기금은 책정사업이 실현될 경

우 영구적으로 존속시켜 중·장기적 교육사업에 투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타종교 이해에 큰 도움”

아셈2000 서울워크숍 평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세계화와 영성, 그 대안적 가치’라는 주제로 ‘ASEM 2000 민간 포럼 종교분과’가 주최한 ‘서울 워크숍(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 참가했던 종교지도자들이 11월 29일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이 워크숍은 다양한 종교와 정신적 전통을 가진 우리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세계화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서 “특히 서로에 대한 인종적인 만남과 나눔은 물론, 워크숍 내용과 한국 문화 체험이 서로 다른 종교적·정신적 전통들을 더 깊이 존중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교과서 불교왜곡 수정·보완”

교육부 편찬담당자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11월 30일 초·중·고교 교과서 중 불교관련 기술내용증 개선·보완해야할 내용을 수록한 ‘교과서 불교관련내용 연구보고서(본지 293호 1면 참조)’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포교원 명조스님(포교연구실장)과 김관태 과장은 포교원에서 각급학교 교과서 연구를 실시한 목적과 연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설명한 뒤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병호 과

서 편찬팀장은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매년 실시되는 교과서 수정 작업에 반영하는 한편 새로이 발간되는 교과서 제작에도 참조하겠다”며 “보고서를 참조하여 교과서의 수정·보완내용을 통보 해주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앞으로 각급학교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교사들이 좀더 심화된 내용으로 불교관련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용 지침서를 발간하여 파리미터를 통해 전국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개 불사의 모든 것 일심불원원

◆ 일심불원에서는 불사에 관련된 일체 모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인사말씀

귀의삼보 하옵고 제방의 대덕 스님과 선연 신도님께 삼가 합장삼배를 올립니다. 시방계국토의 장엄과 무진정법의 외호에 일신의 원력을 세우고 불사 일념 해 온 소생이 금번 조계사 인근에 ‘일심불원’을 개원했습니다. 각종 불사의 상담에서 회향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진하고자 하오니 두루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길 앙망 합니다.

2000년 12월 일심불원 대표 김기문

- 불 상**
 - 목불, 동불, 특수불
 - 순금개금, 당채
 - 大佛, 小佛 (동불, 특수불, 석불)
- 사찰건축**
 - 고건축 (목재)
 - 주삼포, 주심포
 - 내 11포, 외 9포
 - 내 9포, 외 7포
 - 내 7포, 외 5포
 - 내 5포, 외 3포
 - 대응전, 요사채... 현대 건축

- 불 단**
 - 홍승 · 스포르스
 - 다그라스 · 알마시카
 - 목재 일체
 - 조각불단, 수미단불단, 채색불단
 - 법상, 경탁, 연, 불장, 경상
- 탕 화**
 - 조선불화, 고려불화 (석채, 분채, 안료)
 - 홍명화, 흑명화, 채색명화
 - 목명화, 청동명화, 특수불명화

- 단 집**
 - 내외 13포 용반자 학 응두
 - 내외 11포 용반자 학 응두
 - 내외 9포 용반자 학 응두
 - 조각 운각, 미니 운각 (석기래, 부연)
- 단 청**
 - 금모르 단청
 - 벽화
 - 금단청
 - 얼금 단청
 - 굿기 단청

- 불교용품 일체**
 - ◆ 각종 등
 - 비닐만월등 丸, 長
 - 청동 촛대, 향로
 - 공단등, 수입사등
 - 각종 방제 유기
 - 예수재 용품
 - 각종 염주 (합장주, 백팔염주, 천주)
 - 불교 달력
- 약 도**
 - 종로구청
 - 일심불원
 - 조계사
 - 안국동 시가리
 - 공평빌딩